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최근 중국 서비스무역 동향 및 개방(네거티브리스트)

목차

1. 중국 서비스업 생산·교역 동향
2. 한·중 서비스무역·투자 동향
3. 중국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요약

- 중국 서비스업 GDP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3년 68.8조 위안을 기록, 2024년 1분기 현재 전체 GDP에서 59.0%의 비중을 차지
- 서비스 업종별 GDP 비중은 도소매, 금융, 부동산, 정보소프트웨어, 건설, 운송 등의 순이며, 최근 정보소프트웨어, 운송, 금융 등이 성장세
-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크게 감소한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23년 서비스 수출·입은 각각 2.7조 위안, 3.9조 위안으로 1.2조 위안 적자
- 중국은 정보통신, 기타사업, 건설, 가공서비스 등에서 흑자를, 여행, 운송,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
- 최근 우리의 對중국 서비스무역은 위축되고 있으며 2023년 수출·입은 각각 159.1억 달러, 159.7억 달러로 6,210만 달러 적자. 운송, 여행 등의 분야에서 수출이 많고, 가공서비스, 운송, 기타사업서비스 등에서 수입이 많음
- 중국의 서비스 시장 네거티브리스트 전환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1. 중국 서비스업 생산·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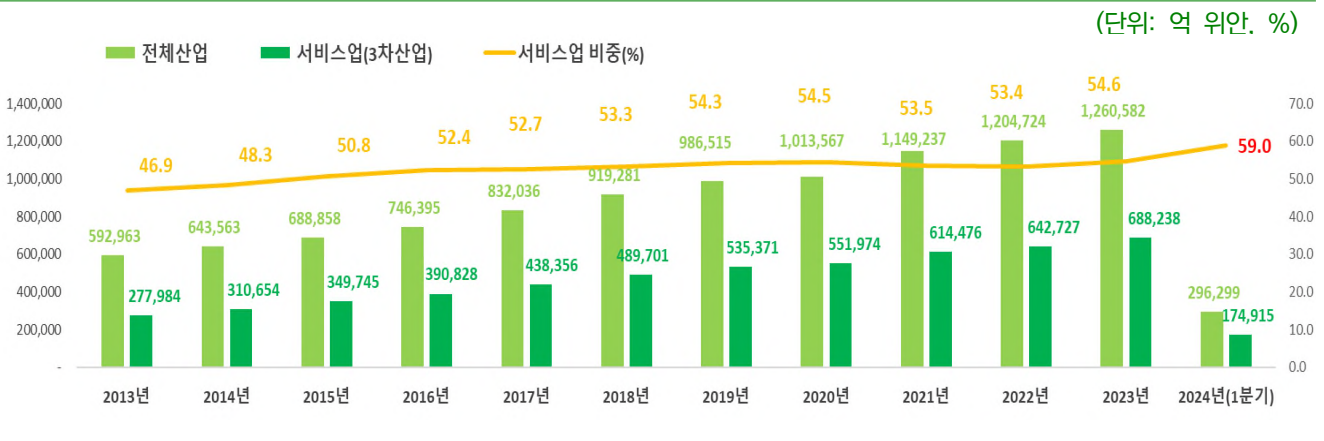
① 서비스업 생산 동향

■ 중국 서비스업 GDP는 연평균 9.5% 성장, 2024년 1분기 전체 GDP의 약 59.0% 차지

- 최근 중국의 서비스업 GDP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5%씩 증가하여 2021년부터 61조 위안(약 1경 원)을 초과했으며 2023년 68.8조 위안 기록
- 중국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를 넘어선 이후 2024년 1분기 약 60%에 육박하며 중국의 GDP 성장을 주도

* 중국의 GDP는 10년 전 대비 2.1배 증가, 서비스업 GDP는 2.5배 증가

【연도별 중국 전체산업, 서비스산업 GDP 금액 및 서비스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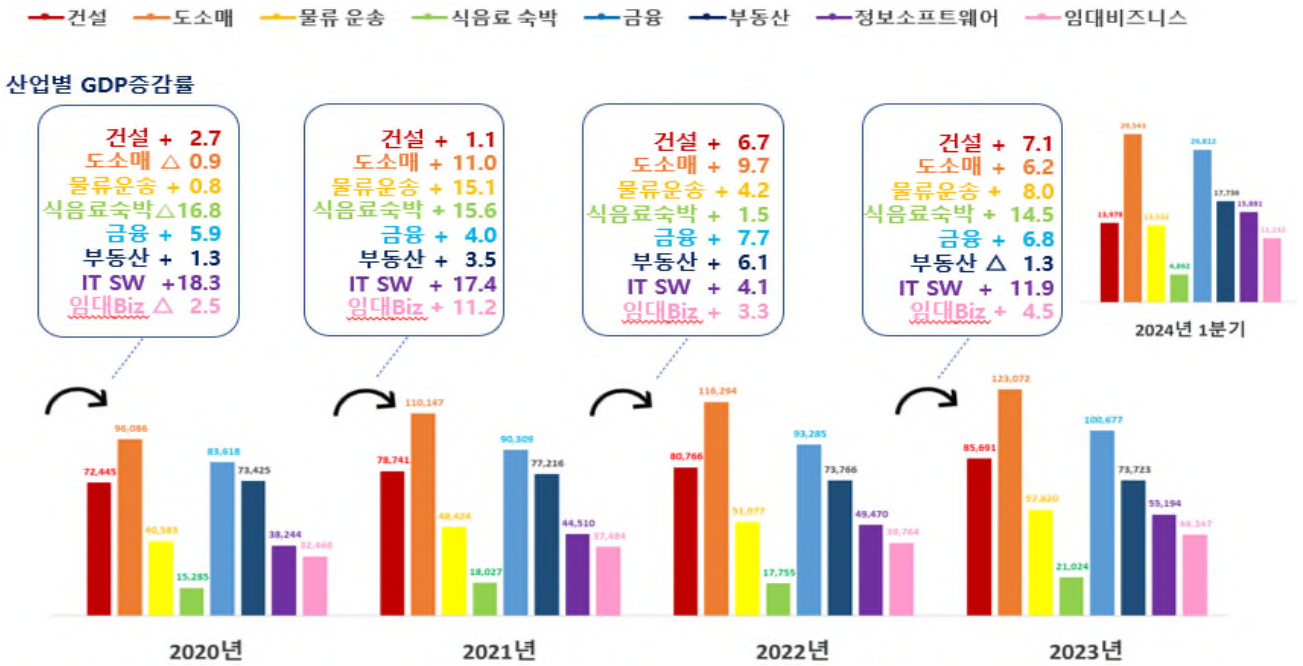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주요 서비스 업종은 도소매, 금융, 부동산, 정보소프트웨어 등이며 정보소프트웨어, 물류운송, 건설, 금융 등이 최근 안정적인 성장세 시현

- 정보소프트웨어, 물류운송, 건설, 금융 서비스의 2023년 GDP는 전년 대비 각각 11.9%, 8.0%, 7.1%, 6.8% 증가한 반면, 부동산은 △1.3% 감소
- 정보소프트웨어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 업무 확대,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 기록
- 도소매, 식음료 숙박, 임대비즈니스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감소했으나 배달수요 확대, 온라인경제 활성화, 호캉스(호텔+바캉스) 등 신소비 확산으로 반등에 성공

【최근 5년간 중국 서비스업 업종별 GDP 금액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억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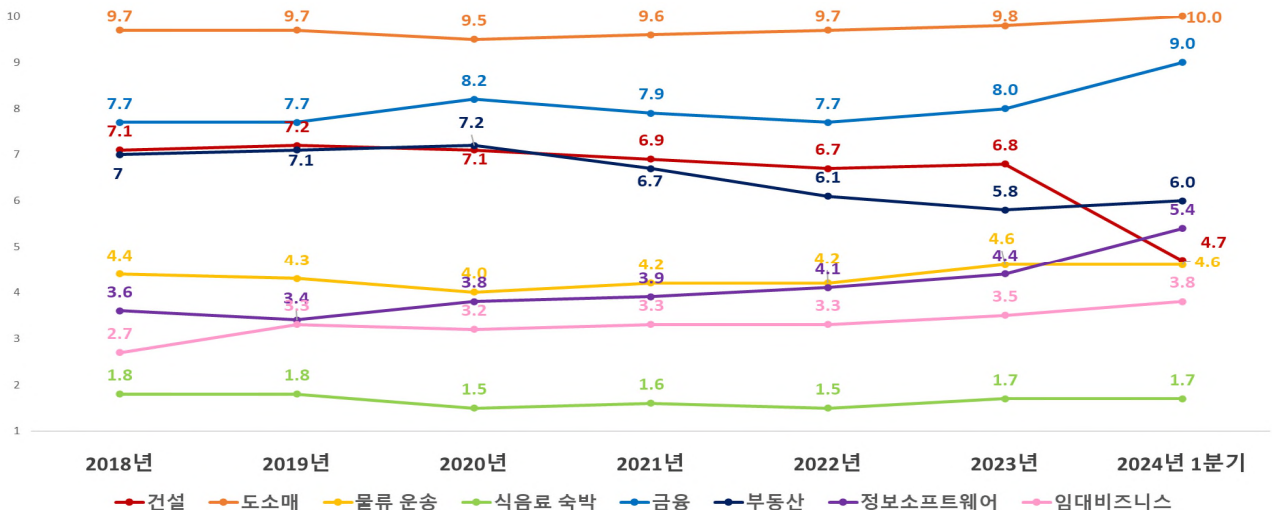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서비스 업종별 GDP 비중은 도소매, 금융, 부동산, 정보소프트웨어, 건설, 물류 운송, 임대비즈니스, 식음료 숙박업 등의 순(2024년 1분기 기준)

- 금융, 정보소프트웨어, 임대비즈니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운송, 식음료 숙박 비중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 유지
- 건설, 부동산 비중은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지연 등의 영향으로 과거 7%대에서 올해 1분기 각각 4.7%, 6.0%로 하락

【최근 5년간 중국 서비스업 업종별 GDP 비중 추이】

(단위: 비중 %)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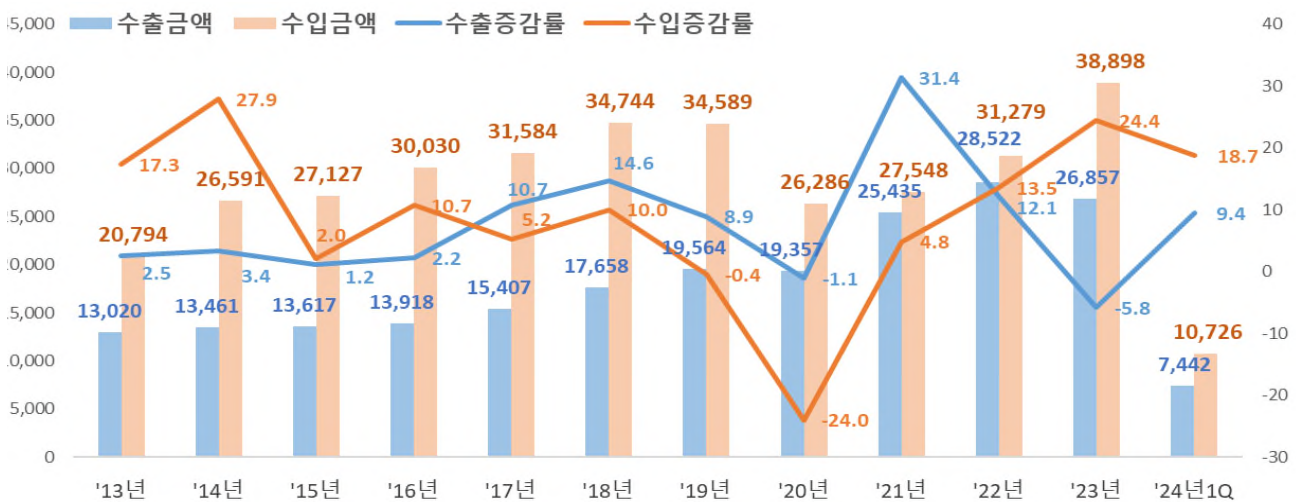
② 서비스업 교역 동향

■ 중국의 연간 서비스 수출입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크게 감소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

-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소폭 감소한 이후 이듬해 크게 증가했으나, 2023년 5.8% 감소하면서 2.7조 위안 기록
- 서비스 수입은 2020년 코로나로 크게 감소한 이후 이듬해부터 반등하여 2023년 3.9조 위안으로 예년 수준을 초과
- 2023년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6조 5,754위안(한화 약 1,251조 원), 서비스무역 수지 적자는 1조 2,041억 위안(약 229조 원) 기록

【연도별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액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억 위안, %)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 2023년 중국의 업종별 서비스 수출 비중은 기타사업¹⁾, 정보통신, 운송이 전체의 70% 이상 차지, 수입은 여행, 운송, 기타사업, 지식재산권이 전체의 85% 이상 차지

- 서비스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큰 분야는 정보통신(3,641억 위안), 기타사업서비스(3,089억 위안), 건설(1,659억 위안), 가공서비스(1,173억 위안) 등
- 서비스무역 적자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여행(△12,804억 위안), 운송(△ 5,932억 위안), 지식재산권(△2,221억 위안), 보험(△716억 위안) 등

1) 기타사업 서비스는 회계, 법률, 컨설팅, R&D 디자인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일컫음

- 2023년 보험, 여행,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67%, 59.2%, 26.5% 증가, 여행, 문화여가, 유지보수 서비스 수입액은 각각 74.7%, 61.7%, 41.8% 증가

【2023년 중국 서비스무역 주요 수출입 업종별 순위】

(단위: 억 위안, %)

순위	수출				수입			
	업종	금액	비중	증감률	업종	금액	비중	증감률
1	기타사업서비스	7,362	27.4	9.7	여행	13,830	35.6	74.7
2	정보통신	6,366	23.7	9.9	운송	12,068	31.0	6.3
3	운송	6,136	22.8	△37.0	기타사업서비스	4,273	11.0	21.1
4	건설	2,214	8.2	16.6	지식재산권	2,994	7.7	0.2
5	가공서비스	1,237	4.6	△11.9	정보통신	2,725	7.0	6.5
6	여행	1,026	3.8	59.2	보험	1,217	3.1	△13.4
7	지식재산권	773	2.9	△13.4	건설	555	1.4	8.6
8	유지보수	703	2.6	26.5	유지보수	413	1.1	41.8
9	보험	501	1.9	67.0	문화여가	284	0.7	61.7
10	금융	305	1.1	△10.9	금융	266	0.7	5.3
11	문화여가	128	0.5	6.9	정부서비스	210	0.5	△13.4
12	정부서비스	106	0.4	△6.5	가공서비스	64	0.2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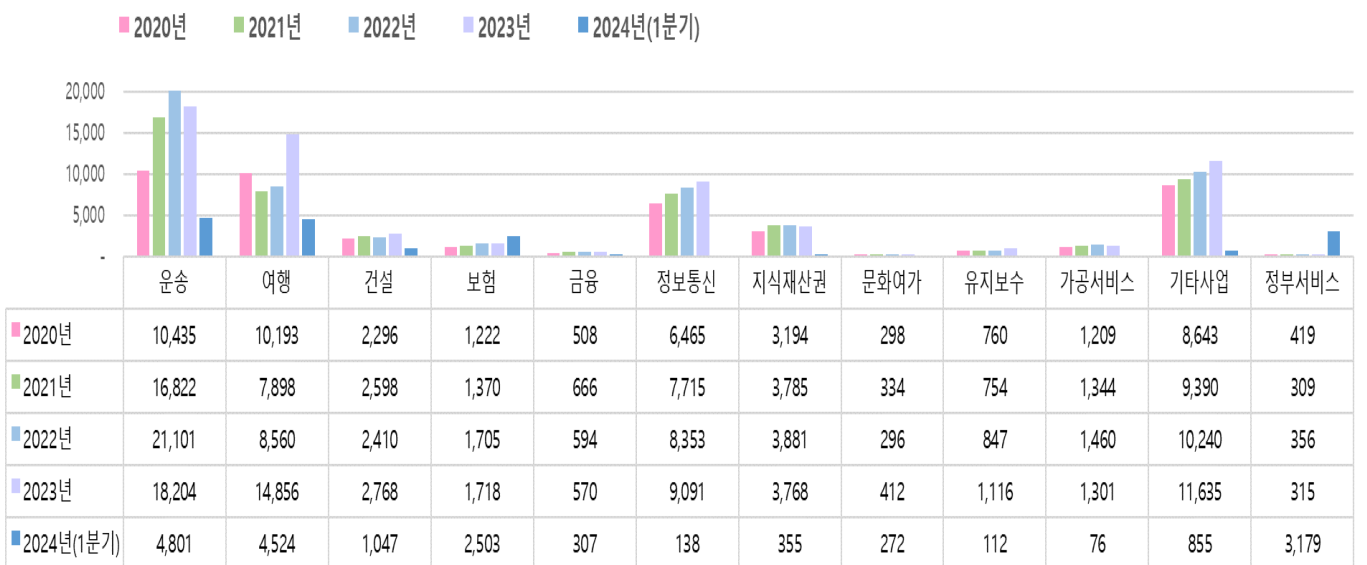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 최근 운송, 여행 서비스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기타사업 서비스도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코로나 이후 운송, 여행 부문의 수입이 커지면서 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법률, 컨설팅, R&D, 디자인 등 기타사업과 정보통신, 가공서비스 무역에서 흑자 폭이 꾸준히 확대

【최근 5년간 중국 서비스무역 업종별 수출입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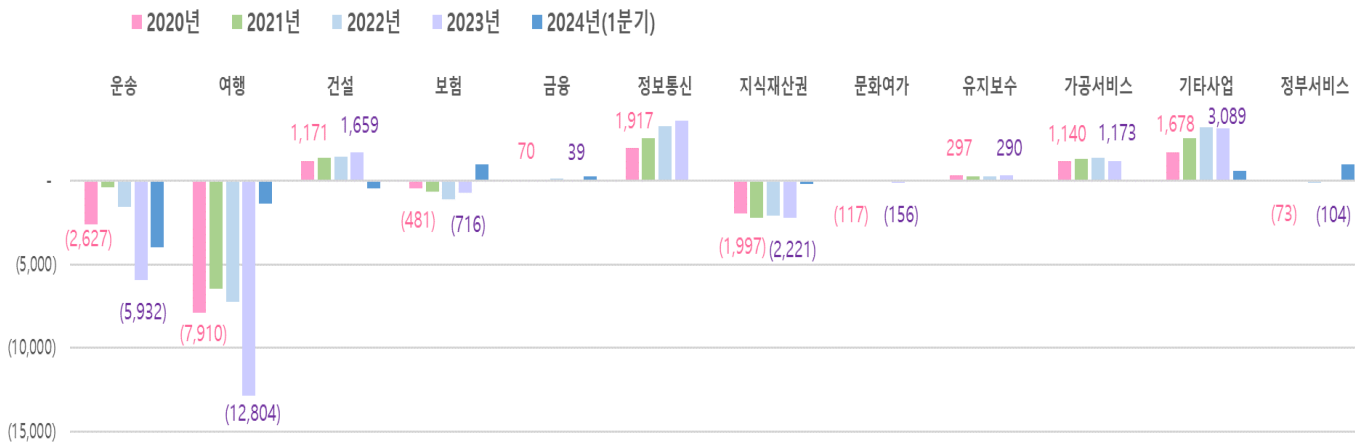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최근 5년간 중국 서비스무역 업종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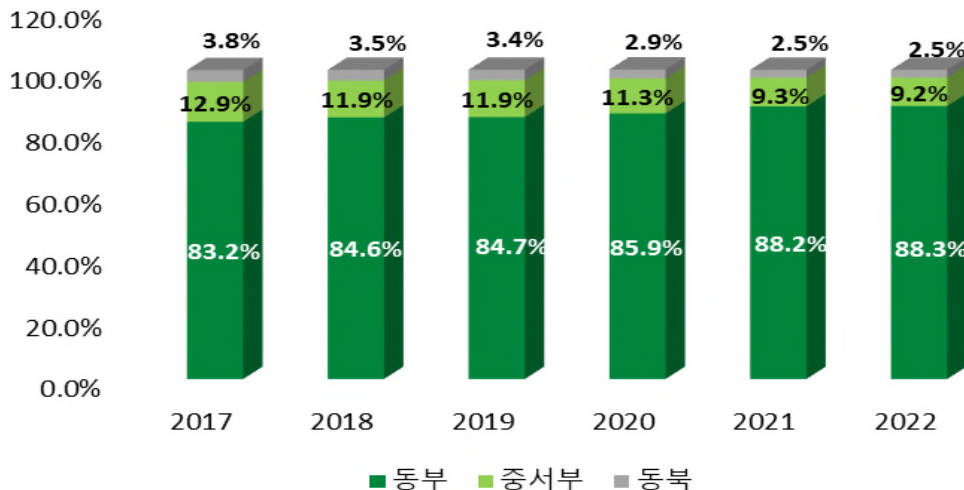
자료: 중국 상무부 통계센터

■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서비스무역이 중국 전체의 약 90%를 차지

- 2022년 기준, 중국 동부지역의 서비스무역 비중은 88.3%, 중서부는 9.2%, 동북부는 2.5% 비중 차지
- 중국 장쑤자오(长三角) 지역은 서비스무역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경제특구로 서비스 수출입 비중은 중국 전체의 43.3% 차지
- 징진지(京津冀) 지역은 중국 서비스 수출입의 19.7%, 웨강아오(粤港澳)는 17.8%, 청위(成渝)는 3.3% 비중 차지

【2017~2022년 중국 지역별 서비스무역 수출입 점유율】

(단위: 비중 %)



자료: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보고서

2. 한·중 서비스무역·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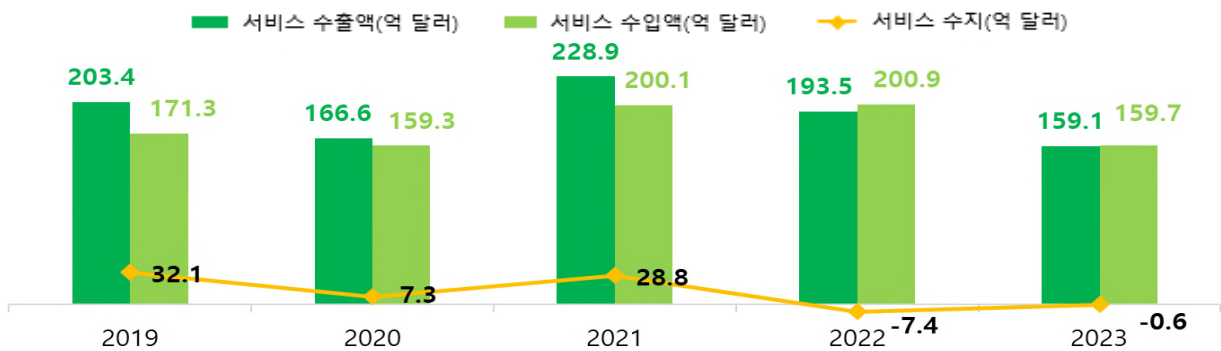
① 한중 서비스업 무역 동향

■ 2020년 코로나 발생 이듬해 급격히 증가한 이후 하락세

- 대중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 이듬해 크게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023년 159.1억 달러 기록, 수입도 코로나 이듬해 증가한 이후 작년에 크게 감소하면서 159.7억 달러 기록
- 최근 양국간 서비스 교역이 크게 위축됐으며 우리는 2022년도부터 對중국 서비스무역 적자를 기록, 2023년 적자 규모는 △6,210만 달러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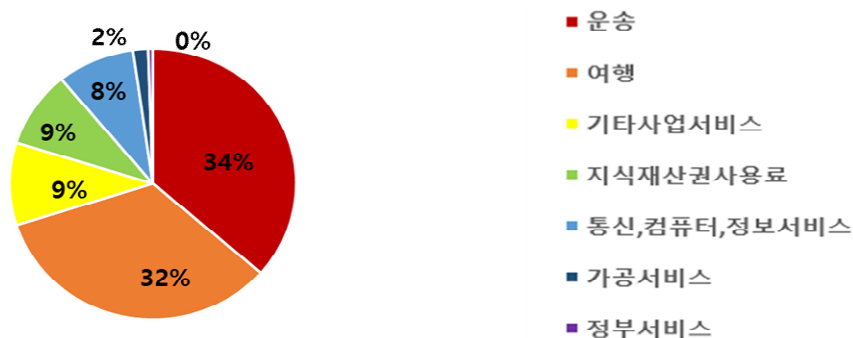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수출은 운송과 여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서비스, 지재산권사용료 등 지식정보산업이 뒤를 잇고 있음

- 2023년 기준 운송과 여행 비중이 각각 34%, 32%로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기타사업 서비스, 지재산권사용료가 각각 9%의 비중을 차지

【2023년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수출 업종별 비중】

(단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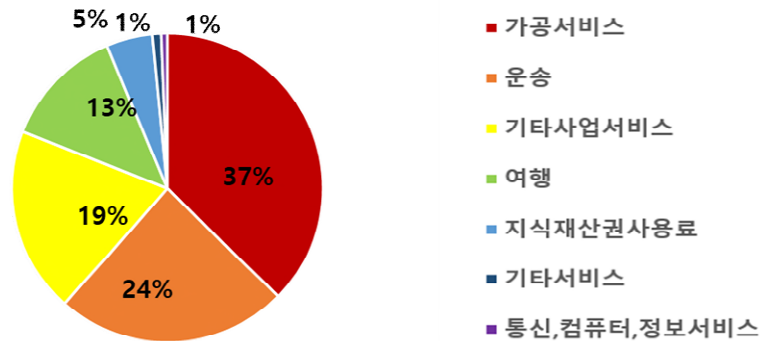
■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수입은 가공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기타사업, 여행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2023년 기준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기타사업이 각각 37%, 24%, 19% 비중을 차지

* 對중국 가공서비스 수입 비중: 2018년 38.6%, 2019년 39.9%, 2020년 35.1%, 2021년 28.6%, 2022년 28.1%

【2023년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 수입 업종별 비중】

(단위: 비중 %)



자료: 한국은행

*기타사업 서비스: 연구개발, 전문 경영 컨설팅, 기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타 서비스: 개인 문화오락(영화, 라디오, 방송, 음악 등의 콘텐츠 및 건강·교육 등), 건축, 보험금융 등의 서비스

② 한중 서비스업 투자 동향

■ 최근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 서비스 투자 모두 감소

- 2023년 한국의 對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액은 각각 15.1억 달러, 4.8억 달러를 기록, 최근 미국의 대중 규제 증가,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추세

* 코로나 발생 이후 2021년 한국의 對中 투자금액이 일시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기업 수는 감소하여, 일시적인 투자 증가로 추정

- 2022년까지 한국의 對중국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80% 이상 차지했으나, 작년 76%로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60%대까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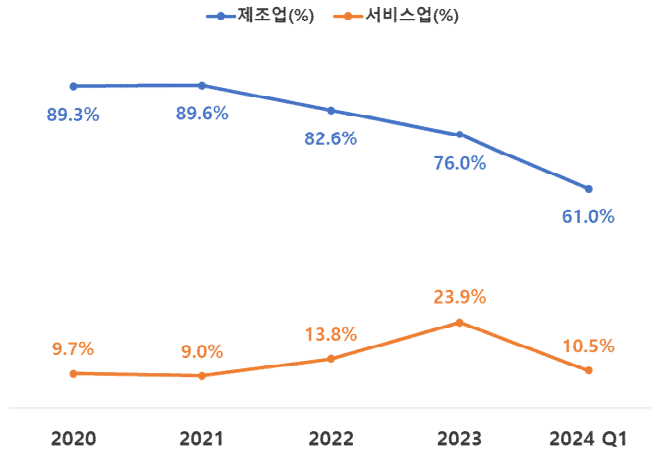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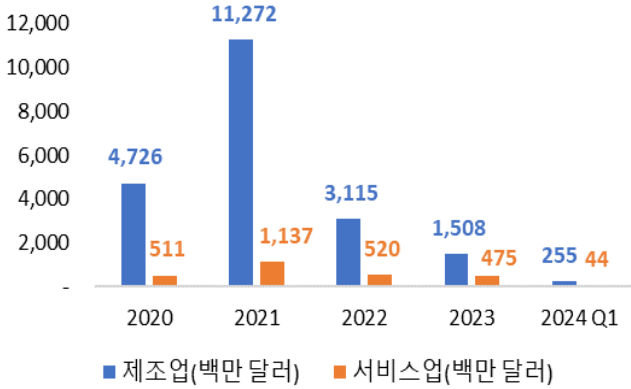
■ 2023년 한국의 對중국 서비스업 투자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제조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증가

- 한국의 對중국 투자 중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2020년 9.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23.9%까지 기록했으나, 금년 1분기는 광업 투자가 급증하면서 10.5%로 감소

* 2024년 1분기 광업분야 투자가 크게 늘면서 대중 광업투자 비중은 2023년 0.03%에서 2024년 1분기 28.3%로 확대

【연도별 한국의 對중국 투자액 추이】

【업종별 한국의 對중국 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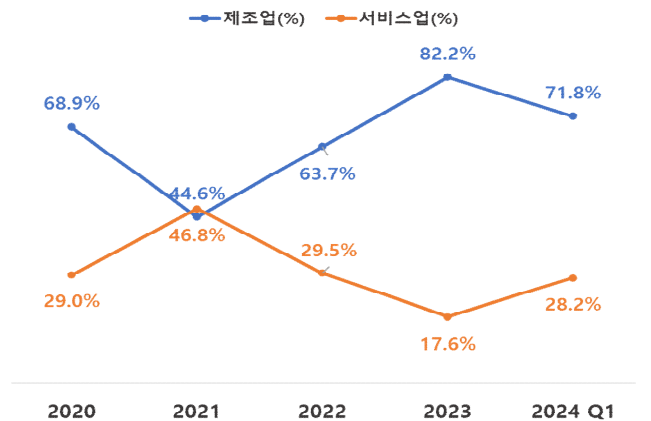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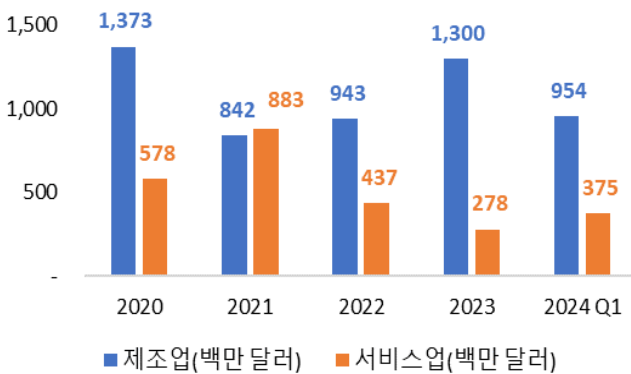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최근 중국의 對한국 투자도 감소 추세이며, 제조업 투자가 활발

- 중국의 對한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액은 2020년 각각 13.7억 달러, 5.8억 달러에서 2023년 각각 13.0억 달러, 2.8억 달러로 감소
-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2023년 제조업 비중이 82.2%까지 치솟는 등 코로나 이후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확대

【연도별 중국의 對한국 투자액 추이】

【업종별 중국의 對한국 투자 비중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업종별로는 공공·기타서비스, 도·소매(유통) 분야의 투자는 감소하고 사업지원·임대, 여가·스포츠·오락, 부동산 분야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

【중국의 對한국 서비스 업종별 투자 신고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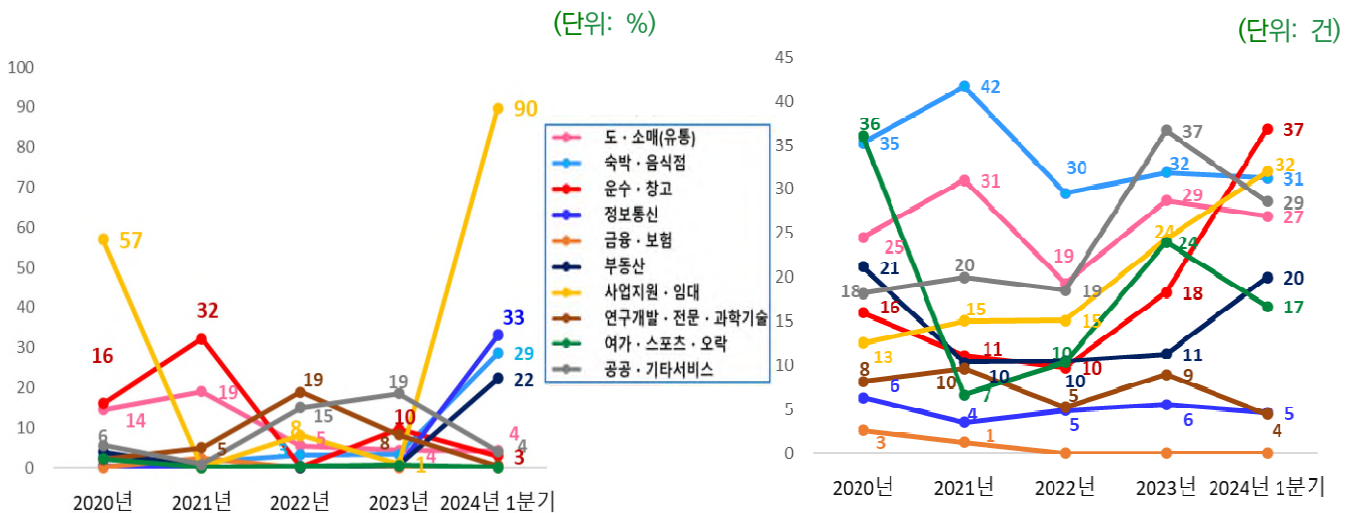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도·소매(유통)	302	186,797	435	77,268	110	13,031
숙박·음식점	60	4,697	95	10,692	15	1,433
운수·창고	7	1,308	17	66,021	7	1,326
정보통신	19	4,594	17	9,380	3	212,486
부동산	16	1,957	16	9,381	8	91,189
사업지원·임대	8	1,473	18	1,615	8	54,538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3	234,173	18	102,353	2	160
여가·스포츠·오락	3	231	6	736	2	151
공공·기타서비스	5	1,984	11	889	2	248
합계	433	437,217	633	278,335	157	374,5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최근 對한국 투자금액 중 사업지원·임대, 정보통신, 숙박음식점, 부동산 업종에서 중국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2024년 1분기 對한국 사업·지원·임대 서비스 분야의 전체 투자금액 중 중국의 비중은 약 90%로 압도적이며 정보통신, 숙박·음식점, 부동산 서비스업의 중국 비중도 모두 20%를 초과
- 對한국 전체 투자 중 운수·창고, 사업지원·임대, 부동산 업종에서 중국의 투자 건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업종별 중국의 對한국 투자금액 비중 추이】 【업종별 중국의 對한국 투자건수 비중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신고기준, 중국/전세계 비중

3. 중국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 중국 상무부는 올해 4월 21일부터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2024년 판)’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를 시행한다고 발표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총 22개 지역

-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외 분야는 국내·외 서비스(국경간 거래, 해외소비, 자연인 이동)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동일한 대우 제공
- 이번 발표된 네거티브리스트는 농업·임업·목축업·어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11개 분야를 포함하며,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리스트는 각각 71개, 68개 조항

【중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2024년 판)】

No.	업 종	개수	No.	업 종	개수
1	농업·임업·목축업·어업	1개	7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11개)	12개
2	건설업	1개	8	과학연구·기술 서비스업	5개
3	도소매업(2개)	3개	9	교육	2개
4	교통운수·창고저장·우편업	13개	10	보건·사회복지업 (1개)	2개
5	통신·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6개	11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11개
6	금융업	15개	합계	(68개)	71개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주: () 안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개수

■ 자유무역시험구에 한하여 전문직 자격증, 금융, 전문서비스, 문화 분야 추가 개방

- (전문직 자격증) 도농설계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경매사, 탐사디자인기술사, 수의사, 감리공정사 등 6종 자격증 시험에 대한 외국인 참가 제한 취소
- (금융)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증권 및 선물 계좌 개설, 증권투자 혹은 선물거래 컨설팅에 종사 가능
- (전문서비스) 외국기업 혹은 외국인이 통관 업무에 종사 가능
- (문화) 중외 합작드라마 중 중국인 배우 비율 제한을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 등

【중국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주요 내용 비교(전국 vs 자유무역시험구 적용)】

업종	주요 내용 (전국 적용)	주요 내용 (자유무역시험구 적용)
3. 도소매업	5. 해외 개인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불가	삭제
5. 금융업	30.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비준받지 못한 증권 경영기관 및 기타 컨설팅 업무 종사 기관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중국 국적 미보유증권투자 상담사는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29.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비준받지 못한 증권 경영기관 및 기타 컨설팅 업무 종사 기관은 증권투자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34.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 경영기관은 선물거래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중국 국적 미보유선물거래 상담사는 선물거래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33.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선물회사 및 기타 선물경영기관은 선물거래 컨설팅 업무에 종사 불가
	36. 해외 기업 혹은 개인은 증권거래소의 일반 회원이 될 수 없음. 해외 기업 혹은 개인은 선물 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중국 정부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해외 기업 혹은 개인은 증권 계좌 혹은 선물 계좌 개설 신청 불가	35. (중략) 자유무역시험구에 취업한 외국인 혹은 구가 별도 규정 외 해외 기업 혹은 개인은 증권 계좌 및 선물 계좌를 개설 불가
7.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46. 해외에 설립된 기업 및 해외 개인은 세관 신고 업무에 종사 불가	삭제
8.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56. 해외 개인은 (1)자산평가사 (2)부동산 평가사 (3)광업권 평가사 (4)측량사 (5)도농계획사 (6)탐사설계 엔지니어 (7)감리공정사 시험 신청 불가	54. 해외 개인은 (1)자산평가사 (2)광업권 평가사 (3)측량사 자격시험 신청 불가
10. 보건·사회복지업	60. 해외 개인은 수의사 자격시험 신청, 인증 혹은 등록 불가	삭제
11.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68.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는 TV 프로그램의 제작 및 경영(수입 업무 포함) 서비스에 종사 불가하나, 비준을 취득하면 중국 내 TV 프로그램 제작기관은 해외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 제작 가능. 중국과 외국의 합작드라마 제작자(각본가,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 중국 측 인원이 1/3 이상. 중국 내 라디오 TV 프로그램의 제작 참여용 해외 개인 고용 시 라디오 TV 관리부서의 비준 취득	65. (중략) 중국과 외국의 합작드라마 제작자(각본가, 제작자, 감독, 주연배우) 중 중국측 인원이 25% 이상

■ 중국 상무부는 이번 네거티브리스트가 국경간 서비스무역 분야의 점진적 개방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며 네거티브리스트 외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서비스 제공업체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언급

참고 자료

1.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
2.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3. 중국 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sj/>)
4. 중국 상무부 (<https://www.mofcom.gov.cn/>)
5. 中国日报网 (<https://baijiahao.baidu.com/s?id=1794304834611510963&wfr=spider&for=pc>)